EG, 중국 구매부진으로 “수요부진”

장기계약 및 JIT 시스템 확산 … 북미 잇따른 가동중단 불구 회복요원

중국의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가 완화되면 하반기부터 EG(Ethylene Glycol) 시장이 회복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아직 뚜렷한 수요 반등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 수요기업들은 메이저 생산기업들이 발표한 계약가격 이하를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SARS의 여파로 Polyester 생산기업들이 플랜트 가동률을 감축하고 재고를 감축함에 따라 국제 EG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EG 생산기업들도 최하의 가동률을 나타냈는데, 2003년 6월 북미 EG 가동률이 50%대에 머물면서 EG의 원료인 EO(Ethylene Oxide) 가동률도 71%대로 떨어졌으나 이후 수요가 반등함으로써 현재 EG 가동률이 80%로 상승했다.

Chemical Intelligence에 따르면, 10월1일 중국 국경일 전 중국의 EG Spot 가격은 톤당 평균 660달러를 나타냈으며 입찰가는 최고 670달러까지 상승했으나 국경일 전에 구매열기가 가열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EG 시장은 하강세를 나타냈다.

또 Dow Chemical 및 Saudi Arabian Basic Industries(Sabic)는 9월 및 10월 계약가격으로 각각 톤당 720달러, 740달러를 발표했으나 중국 구매기업들은 10월 구매가격으로 650달러를 제시해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의 Polyester 생산기업들은 내수공급을 위해 플랜트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인 EG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곧 구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Polyester 완성제품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EG 생산기업들은 9월 가격을 파운드당 3센트 인상한데 이어 10월에도 3센트 추가 인상함에 따라 현재 Spot 가격이 파운드당 30센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반적으로 9-10월이 부동액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Blender들이 안정적인 연간계약을 선호하고 적기공급방식(JIT: Just-in-Time)으로 전환하고 있어 수요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재고를 대량 축적하는 방식보다 JIT 시스템이 선호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운전자본이 묶여있어 시장전망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북미에서는 Dow가 캐나다 앨버타주 Prentiss 소재 Prentiss II 플랜트의 정기보수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EG 수급타이트 현상이 나타났다. Dow는 기계적 결함으로 Prentiis II 38만톤 플랜트 재가동 시기를 11월로 연기했으나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는 2002년 BASF가 EG 39만톤 플랜트에 이어 루이지애나주 Geismar 소재 2개의 EO 플랜트를 폐쇄했다. Huntsman은 2000년 12월 폭발사고로 가동을 중단한 바 있는 텍사스주 Port Neches 소재 EO 1억7500만파운드 및 EG 2억4000만파운드 플랜트 재건계획을 취소했다.

북미 EG 생산기업들은 원료 코스트 문제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03년 초 천연가스 가격폭등에 따라 에틸렌(Ethylene) 가격이 1-3월 파운드당 5센트 이상 급등함으로써 EG 가격도 1-3월 톤당 약 200달러까지 폭등했고, 천연가스 가격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스트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Sabic은 Jubail United Petrochemical의 사우디 Al-Jubail 소재 EG 플랜트 생산능력을 62만5000톤 증설할 계획이다. Sabic의 신설 플랜트는 2005년 말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JUP의 2번째 플랜트이며 Sabic은 7번째이다. 이에 따라 Sabic의 EG 생산능력은 2007년까지 총 350만톤으로 확대돼 세계수요의 약 20%를 공급하게 된다. Sabic은 57만5000톤 플랜트도 건설하고 있으며 2004년 말 또는 2005년 초 양산에 들어간다.

타이완 Nan Ya도 2003년 4/4분기에 35만톤 플랜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BASF는 중국에 32만톤, 이란에 40만톤 플랜트를 건설해 각각 2005년과 2006년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11>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